<블랙베리>

학명 : *Rubus allegheniensis* *Rubus thyrsoideus* 영명 : blackberry, mountain blackberry, highbush blackberry 한명 : 黑莓 일명 : ブラックベリー	

8.3.1 원산지, 재배내력과 이용

1 원산지와 분포

블랙베리는 장미과(Rosaceae), 나무딸기속(*Rubus*) 식물로 지구상에서 기원을 찾기는 어려우나 오래전부터 아시아, 북미, 남미, 그리고 유럽에서 자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백만년 동안 야생에서 성장한 블랙베리는 자연적으로 쉽게 교잡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종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결과로 블랙베리 종의 분류는 쉽지 않다. 식용이 가능한 블랙베리는 *Rubus* 아속 식물들의 교잡종 및 *Rubus* 아속과 *Idaeobatus* 아속의 교잡종이다.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는 형태적으로 구별이 가능한데, 수확한 과실에 꽃받침이 붙어있어 과실 속이 차있으면 블랙베리이고 꽃받침이 나무에 남아있어 과실 속이 비어있으면 라즈베리이다. 블랙베리를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약용으로, 미 대륙의 원주민들은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하였으며 동물 가죽을 염색하는 재료로도 이용하였다. 그러나 호주, 칠레, 뉴질랜드와 태평양 북서부 연안의 일부 나라에서는 블랙베리 종류 중 *R. armeniacus*와 *R. laciniatus*를 심각한 잡초로 분류하고 있다.

2 재배현황

블랙베리는 유럽과 북미의 초기 정착민들이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주로 채취하여 이용하다가 1880년경 북미에서 처음 육종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육종에 의해 가시가 없고 품질이 우수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블랙베리가 육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확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멕시코는 세계에서 블랙베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며 북미와 유럽의 단경기에 수출도 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곤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2011년 2,900ha의 면적에서 24,244톤의 과실을 생산하였다. 그 외에 영국, 칠레, 지중해연안의 국가와 뉴질랜드에서도 블랙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3 성분 및 용도

블랙베리는 비타민과 칼륨이 많고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며, 과실 속 씨앗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카로티노이드와 각종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다. 과실은 신맛은 있으나 크고, 과즙이 많아 생과로 먹을 수도 있고 잼, 젤리, 파이, 와인, 브랜디를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고기 요리의 풍미를 좋게 하고 머리와 직물을 염색하는 데에 사

용하고 있으며 면역력 강화 등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8.3.2 품종

블랙베리는 낙엽성 관목식물로 생장 습성에 따라 직립, 반직립, 덩굴성, 또는 줄기에 가시가 있는 것과 없는 품종으로 분류한다.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블랙베리 품종의 약 50%는 반직립성, 25%는 직립성, 25%는 덩굴성이다. 반직립성 품종으로는 'Thornfree', 'Lotcness', 'Chester Thornless'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고 직립성 블랙베리로는 'Brazos', 'Tupy' 등이 있다. 덩굴성 블랙베리는 대부분 'Marion'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주 재배지역은 미국의 오레곤주이다. 태평양 북서부지역에서는 'Thornless Evergreen', 'Marion', 'Kotata' 등의 덩굴성 품종이 전체 재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덩굴성 블랙베리는 직립 또는 반직립성에 비해 저온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이나, 영국, 뉴질랜드, 칠레, 지중해 국가 등의 비슷한 기후 지역에서 잘 자란다.

블랙베리는 가시의 유무에 따라서도 품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덩굴성 가시 없는 블랙베리에는 'Black Diamond', 'Black Pearl'과 'Nightfall'이 있고 직립성으로는 'Navaho'가 있다. 반직립성 가시 없는 블랙베리 품종으로는 'Black Satin', 'Chester Thornless', 'Dirksen Thornless', 'Hull Thornless', 'Loch Maree', 'Loch Ness', 'Loch Tay', 'Merton Thornless', 'Smoothstem' 'Triple Crown', 'Cacanska Bestrna' 등이 있다.

블랙베리는 보통 2년생 가지에서 결실이 되나 'Prime-Jim', 'Prime-Jan'과 같은 품종은 1년생 가지에서도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된 품종으로 연 2회 수확이 가능하다.

8.3.3 생육특징

직립성 블랙베리는 전정을 하지 않으면 4m까지 자라며 과실은 맛이 있으나 씨앗이 크고 종종 쓴맛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덩굴성 블랙베리보다 과실이 단단한 편이다. 반직립성 블랙베리는 6m까지 자라고 일반적으로 직립성이나 덩굴성 블랙베리보다 수확량이 많은 편이다. 과실 품질은 직립성 블랙베리와 비슷하다.

꽃은 총상화서로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피는데 각 꽃은 직경이 2~3cm이고 5개의 흰색 또는 분홍색 꽃잎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가 결실성이 있어 자연 상태로 방치해도 잘 결실한다. 과실 수확은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로 가장 집중적인 수확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이루어진다. 줄기는 적갈색을 띠며, 줄기 끝이나 뿌리로 번식한다.



그림 8-10 블랙베리 유인재배

8.3.4 재배적지의 조건

블랙베리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선호하고 서리에 취약하다. 햇빛이 오래드는 곳이 가장 좋으나 약간의 그늘진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다른 베리류에 비해 토양적응성은 넓은 편이다. 블랙베리 뿌리는 60cm 깊이까지 뻗지만 대부분 지표면에서 30cm 내외에 80% 이상 분포되어 있다. 블랙베리는 습해에 아주 약한 작물로 재배적지는 지하수위가 낮고, 토심이 깊으며 경사가 15도 정도로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토양은 유기물이 많고 pH 5.5~6.5인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는데 생육 후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축적하지 못할 때 겨울철 줄기가 동상해로 고사되거나 병해로 썩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력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야생 블랙베리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배해야 한다.